

# 바이애슬론 문지희 대회 3연패

(신안군청)

## 광주 용봉중 최준희·금당중 최지은 피겨 금

### 동계체전 개막

동계체전 3관왕을 향한 문지희의 질주가 시작됐다.

신안군청 문지희가 14일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동계체전 바이 애슬론 여자일반부 개인경기 15km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팀 동료인 김서라는 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열린 아시아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에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문지희는 동계체전 첫날 경기에서 무난히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을 향한 순항을 시작했다.

전남의 대회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문지희는 대회 3연패의 위업까지 달성했다.

순천 청암고 박혜영은 여고부 피겨에서 환상의 연기를 선보이며 은메달을 더했다. 컬링 여고부에 출전한 목포여성은 동일전자 정보고를 9-7로 꺾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광주는 대회 첫날 피겨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다.

용봉중 최준희가 전주 화산빙상경기장에서 벌어진 남중 피겨 싱글D조에서 31.93점을 기록, 경기 과천중 김형태(22.40점)을 9.53점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여중 싱글 D조에 출전한 최지은(금당중)도 금빛 연기를 펼치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14일 막이 오른 전국동계체전은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주 화산실내빙상장, 서

울 목동아이스링크, 태릉국제스케이트장,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등에서 분산 개최되며 오는 17일까지 4일간 계속된다.

동계체육의 불모지 제주도가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하면서 16개 시·도 3500여명의 선수단이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5년 연속 종합 8위 수상'을 목표로 내건 전남은 5개 종목에 187명(선수 108, 임원 79명)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광주는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4개 종목에 115명(임원 26, 선수 89)의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 10위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4일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개인경기 15km에서 신안군청 문지희가 역주하고 있다.

## 해남군청 펜싱팀 창단

"신생팀의 패기로 결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해남군청 펜싱팀이 최근 해남우슬국민체육센터에서 창단식을 갖고 합찬 기지를 졌다.

대한펜싱협회 삼비군 펜싱팀은 최근 4월 11일 해남에서 개최되는 협회장전국 펜싱대회를 목표로 강도 높은 훈련을 펼치고 있다. 선수들은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국가대표 박경우 등 많은 선수를 배출한 '펜싱의 고장' 해남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전력 보강을 통한 순위가 예고된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는 해남공고 출신인 김승재, 정성국(이상 국군체육부



대)이 합류하며, 내년 시즌에는 현 국가대표로 런던올림픽 출전이 예정된 박경우(29·세계랭킹 10위·의산시청)와 김수민(30·광주수구청)의 가세가 예상돼 있다.

정인우 감독은 "아직은 선수 구성면에서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남군청 펜싱팀의 매서운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 팀의 사활을 내걸고 오직 훈련,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산행안내

광장화랑길과 함께 산행장과 해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행장과 해의 경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